농촌진흥청, 공간정보와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이전 협약

관개 제어시스템 등 6가지 특허기술 기술이전 실시료 3억·사용기간 3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공간정보가 최근 국 립식량과학원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이전 협 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기술이전 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공간 정보에 정밀 물관리 기술과 병해충 예찰 기술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6가지 특허기술을 하나로 묶어 이전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로 했다. 기술이전 실시료는 3억원이며, 사용기간은 3 년이다.

기술 이전된 6가지 특허기술은 지중 점적 관개 제어 시스템, 트랙터 장착형 암거배수관 매설기를 이용한 암거배수관 시공 방법, 지하 수위 제어 시스템, 자동 포집 모듈을 포함하는 해충 유인 트랩, 드론 도킹 스테 이션 및 이를 이용한 드론의 도킹 방법 등 특허 5건과 이러한 개별 요소 기술들을 통합해 자동 운영하는 노



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프로그램 저작권 1건이다

이번 기술이전은 지난 5월 국립식량과학원이 공간 정보와 맺은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보급을 위해 추진됐다.

공간정보는 무인기(드론) 개발과 영상 촬영, 3차원 모형화(모델링), 정밀농업에 기반을 두고 무인기(드 론)와 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노지작물 수확량 예측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데이터 구축 등 국내 ·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효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우리 농업 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노령화, 안정 생산 등 문 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농법은 필수적"이라며 "첨단 기 술의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니서겠다" 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네일 엑스포 & 뷰티 교류전' 진행



'제5회 광주 네일 엑스포 & 뷰티 교류전' 개회식이 25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컬처호텔 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사진〉

뷰티산업협회 협동조합(이사장 서동균)이 주관하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한국산업 인력공단 광주본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는 '퍼스널 컬러'에 관한 뷰티 전문가 초청 세

미나, 사례 발표, 음악 공연이 진행됐다.

또 호텔 1층 미술전시관에서는 '일과 손' 을 주제로 한 이인재 작가의 사진 초대전, '손 운을 담다'를 주제로 한 김태윤 작가의 도예 초대전, 박미진 작가의 미술 초대전이 27일까지 진행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문예위, 지역 공공기관과 보육 아동 대상 '친환경 놀이'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는 최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 흥원, 전력거래소,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 지역 공 공기관과 함께 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강진자 비원의 보육 아동들을 대 상으로 '농업체험 및 친 환경 놀이 교육'을 진행



〈사진〉 이번 교육은 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전남지역문제해 로 토마토 이론 및 체험놀이, 토마토 활용 간식 만들 결플랫폼 협업기관들이 각 기관의 특색을 담아 지역 기, 텀블러 DIY 꾸미기, 환경보호 실천 및 인식 제고 초등학생들의 농업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고, 친환경 를 위한 환경인형극 영상 상영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 공감대를 조성하며 지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라는 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진자비원에 필요한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여기관들은 강진자비원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대 김영진 교수 항공문학상 우수상 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항공서비스학과 김영진〈사진〉 교수가한국항공협회가주최하는 제8회항공문학상공모에서우수 상을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항공 여행 및 관 련 분야의 현장감 넘치는 이야

기를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수필 등의 창작품을 접수받 아 총 50편을 선정했다.

김 교수는 단종된 보잉747 비행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시를 제출했으며, 감춰진 사물의 본질을 시적 형상화를 통해 서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비행이 멈췄던 시기에도, 항공의 꿈을 놓 지 않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에 대한 응원과 애정의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며 "그 따뜻함을 높이 평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 남부소방, 동계수난구조특별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최근 119구조대원 19명을 대상으로 동계 수난사고를 대비 해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동계수난구조특별훈련'을 실시했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40 굿모닝 카타르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3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하이라이트 모닝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광주MBC 보다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폐막식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커튼콜(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 30 와츄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하이라이트	00 SBS 12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남도 지오그래피(재) 30 KBS광주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뭉게공항(재) 30 TV 유치원	55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대한민국: 우루과이〉(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영상앨범 산(재)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20 2TV 생생정보	55 5 MBC 뉴스	00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대한민국: 우루과이〉(재)
6	00 6시 내고향	30 2022 카타르 월드컵 G조 〈카메룬: 세르비아〉	1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프리뷰쇼 카타르시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00 MBC 뉴스데스크 35 안정환의 히든 카타르	00 KBC뉴스와이드 3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4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대한민국:가나〉	00 KBC 8 뉴스 3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대한민국:가나〉
9	00 KBS 뉴스 9	1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대한민국:가나〉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11	30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12	10 TV쇼 진품명품(재)	10 2022 카타르 월드컵 G조 〈브라질:스위스〉	10 2022 카타르 월드컵 G조 〈브라질:스위스〉	40 2022 카타르 월드컵 G조 〈브라질:스위스〉

05:00 왕초보영어

05:30 클래스 e

06:10 세계테마기행

07:1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

08:50 띠띠뽀띠띠뽀

09:20 빅블루

05:50 한국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8:35 그린조끼 구조대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09:35 타타와 쿠마

09:40 우리집 유치원

EBS₁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3:00 바닷가 사람들 13:50 EBS 다큐프라임

14:45 한국의 둘레길

15:9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피그

16:25 그린조끼 구조대(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인간과 바다

19:00 말괄량이 삐삐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17:00 EBS 뉴스

20:40 세계테마기행

〈두근두근, 마다가스카르

-낯설고도 아름다운〉 21:30 한국기행

〈고흥이 좋아서 1부 사양도 연가〉

21:50 위대한 유산 - 동남아시아2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 (음 11월 5일 乙酉)





36년생 구체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니라. 48년생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겠다. 60년생 지난날에 비 추어 가볍게 여긴다면 큰코다칠 수도 있다. 72년생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큰코다친다. 84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96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40,87



丑

37년생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49년 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61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 인다. 73년생 속 시원한 것보다 원만한 것이 가장 무난하리 라. 85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97년생 예상하지 못했 던 신기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8,71



38년생 주변의 충동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50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62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다. 74년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탄력을 받는다. 86 년생 입으로 인한 화근을 짓지 말라. 98년생 활용하지 못한 다면 참으로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70,55



卯

39년생 주체적 관념이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51년 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63년생 얼마 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리라. 75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87년생 조금 만 참고 있으면 결정될 경우이니라. 99년생 비슷한 것 같지 만 사실은 천양지차이다. 행운의 숫자: 39,70



辰

40년생 집착하다 보면 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 가지치기를 잘해야 하느니라. 52년생 미리 준비해왔다면 지금부터 빛을 보게 되는 길목에 들어선다. 64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 니 용기를 갖고 임하라. 76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겠다. 88년생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00년생 천우신

조로써 대길하는 운세이다.



41년생 설계에 빈틈이 없어야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53 년생 초기 대응에 부실하다면 판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65년생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 다. 77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89년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겠다. 01년생 복 합적 파생 효과가 크다. 행운의 숫자: 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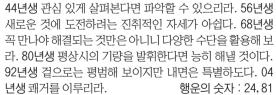
42년생 체면 때문에 내버려 둔다면 불상사가 생길 것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54년생 실제로 접하면서 사실상의 가 닥이 잡힐 것이다. 66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 하였던 바이다. 78년생 바쁜 일상 속에서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90년생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마당이다. 02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2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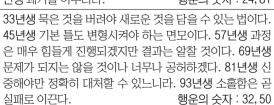


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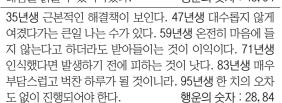
酉

43년생 만사여의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흐름대로 임 하라. 55년생 제반 사정을 차치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옳 다. 67년생 번거로우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도 괜찮다. 79 년생 상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도 가닥 이 잡힌다. 91년생 마음을 비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 하다. 03년생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9,63





34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46 년생 짐작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겠다. 58년생 번복될 수도 있는 구도여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70년생 성부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리라. 82년생 목적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94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43,64





戌

행운의 숫자: 29,78